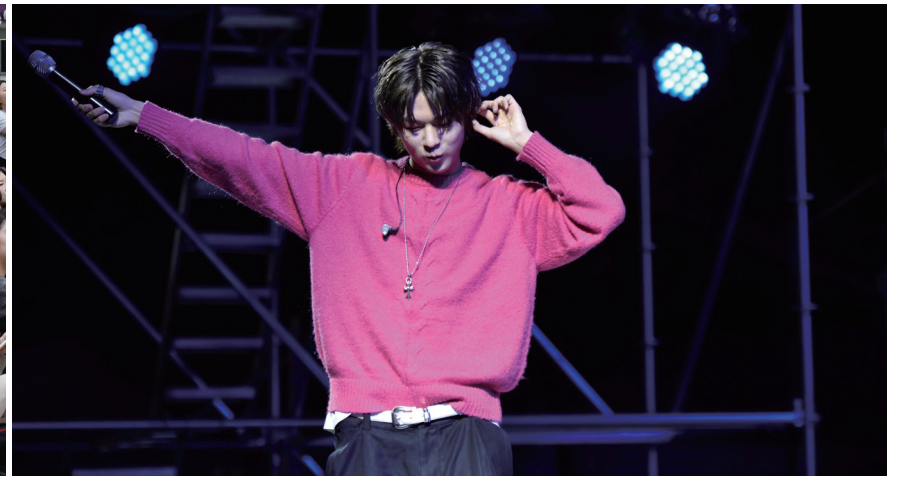


재능 TODAY

발행인 이남식 | 발행처 인천재능대학교 방송학보사 | 주간 홍성식 | 간사 송정은 | 편집장 배지우 | 편집디자인 김형운편집회사 | 인쇄처 (주)재능인쇄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 문의 032) 890-7955 | 홈페이지 www.jeiu.ac.kr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 JEIU FESTIVAL

걸어서 재능 속으로 WITH ESG

중간고사가 끝나고 흥가분한 마음, 따뜻해져 가벼워진 옷차림이 봄날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는다. 우리대학은 5월 4일 2023 JEIU FESTIVAL '걸어서 재능 속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ESG'가 주제이다. 다회용기 회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연을 위해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 e스포츠 경기 결승 중계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경기를 관람하며 광장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다. e스포츠 경기 우승은 AI컴퓨터정보과 최환석 외 4명이 거머쥐었다. 체험부스에서는 칵테일, 음식, 달고나 등 먹거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헤어와 메이크업, 무료 사진 부스도 성황을 이뤘다. 총학생회의 개회 선언으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남식 총장과 홍정우 총동문 사무국장의 격려사와 격려금 전달이 있었다. 청운대 '스위펍킨'의 찬조 공연, 우리대학 실용음악과 '유리'와 '헤진밴드'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JEIU 가요제(복면가왕), 댄스동아리 'JD'까지 학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끼를 맘껏 펼쳤다. '지정', '우디고 차일드', 'BIG Naughty', '멜로망스' 등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보고싶은 가수의 공연이 이어지자 열기가 폭발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자유롭고 흥겨운 하루를 보낸 듯하다. 학생들 모두 대학 축제의 열기와 낭만을 만끽하면서도 건전한 대학문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함께 힘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대학 축제이다.

재능에듀포럼, 화요일마다 명사에게 듣는 창의·융합·인성 교양
‘인생 설계 그리고 기본을 다지기 위한 힘’



한석준 특임교수와 이민호 온라인콘텐츠창작자(닥터소통 채널)



유민주 특임교수



최영선 온라인콘텐츠창작자(희렌치 채널)



성현규 온라인콘텐츠창작자(감성대디 채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우리대학은 매주 화요일 대강당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AI시대 창의·융합·인성을 갖춘 교양인 양성을 목적으로 아주 특별한 교양 강좌를 운영한다. ‘재능에듀포럼’이 그것이다. 이는 바른 인성과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과 소양을 기를 목적으로 개설한 교과목이다. 이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3월 14일 한석준 특임교수와 이민호 온라인콘텐츠창작자(닥터소통 채널)가 함께한 <스피치와 소통>, 3월 21일 박창우 순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숏폼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 유행>, 3월 28일 한석준 특임교수의 <스피치 잘하는 요령과 훈련방법>, 4월 4일 하대석 쿠광 이사의 <천재성을 발휘하는 방법>, 4월 11일 한석준 특임교수의 <좋은 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 1:1 원포인트 레슨>, 4월 18일 성현규 온라인콘텐츠창작자(감성대디 채널)의 <학벌 스펙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냥하기의 힘>, 5월 2일 최영선 온라인콘텐츠창작자(희렌치 채널)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5월 9일에는 한석준 특임교수의 <스피치와 시간 활용법에 대한 특강>, 5월 16일 유민주 특임교수의 <기록, 공유를 통한 마법스러운 인생 변화>, 5월 23일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미래 사회와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 등 14주간 9명의 명사를 초청하여 인생 설계를 위해 다져야 할 기본 태도와 마음가짐, 스피치와 소통, 명사의 도전과 경험에서 듣는 시야를 달리 또는 넓게 가졌을 때 오는 기회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재능에듀포럼’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A 내가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붙잡지 말고 도망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스트레스를 받던 나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그랬던 경험 또한 도망칠 용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내려놓고 난 후 내가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도망칠 용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기도 한 것이라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의여서 정말 유익했다. 친구들에게 강추한다.

B 평소에 세바시 같은 명강의들을 좋아해서 유튜브로 종종 찾아보고 했는데 재능에듀포럼으로 인해 더 좋은 명강의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다. 다음 학기에도 또 듣고 싶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이 어떤 자기 계발서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를 듣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C 한석준 코치의 강의 내용들이 기억에 남았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말, 발음 잘하는 법 등 언어적인 내용을 코칭해 주었다. 그리고 7주 차에는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인 성현규 대표가 와서 강의했는데 ‘그냥하기’의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 쉬워 보이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민호 대표의 강연에서 발표 잘하는 법은 자신들의 경험을 스토리로 활용하여 얘기하면 그냥 무뎉뎉한 발표보다 더 즐겁고 조리있는 발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남식 총장,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평생직업교육 발전 공로로
대학분야에서 유일 수상의 영광

5월 24일 TV조선이 주관한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우리대학 이남식 총장이 교육경영부문 수상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이남식 총장은 전주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계원예대, 서울예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통찰력 있는 리더십으로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남식 총장은 올해 1월에 우리대학 제18대 총장에 취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목표로 대학을 혁신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정책포럼, 대학 컨소시엄, 신기술 업무협약 등 각종 교육행사에서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3 한국이 영향력 있는 CEO'상에서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모두 45명이 선정됐으며,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이남식 총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도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선정, 컨소시엄 업무 협약 체결

지역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늘봄·교육소외지역 학교 교육기부자원 발굴

우리대학은 '2023년 수도권 교육 기부 거점지원센터'로 선정되어 6월 15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정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와 함께 수도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사업'은 학교 밖 우수 교육자원 발굴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부-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모델 개발 및 모델학교 운영, 수도권 교육기부 프로그램 발굴 및 컨설팅 실시, 학교-교육청 담당자 교육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성과확산 등 추진과제를 공동 운영한다.



인천과 동구를 변화시키는 거대 프로젝트 가동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위해 산·학·관 긴밀한 협력
 5월 2일 인천 동구 화수동 소재 옛 창흥산업 건물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산·학·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동구의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사업을 제출하기 위함이다. 창흥산업과 우리대학은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을 위한 상호협력과 화수부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로컬창업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위한 K-Beauty Trend 연수

베트남 라모스파 연수생 초청 연수 실시

우리대학은 4월 4일 베트남 라모스파 연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라모스파 대표 외 32명은 우리대학을 찾아 'K-Beauty Trend Therapy 메조톡스&메조필러'를 주제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교내 실습실 등 수준 높은 시설들을 탐방했다. 이남식 총장은 모든 일정을 끝낸 연수생 32명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 우리대학은 이와 같이 외국인 연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주)센트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위한 협력

우리대학은 3월 10일 이남식 총장과 유정연 (주)센트

트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현장 실습이나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용장비를 운영하며 R&D 연계 사업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불스원 그룹 자회사인 (주)센트온은 최고의 향기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향기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공간과 계절에 따른 토탈 향기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인천우체국과 관학협력 협약 체결

드론 활용방안 다각화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

우리대학은 서인천우체국과 3월 10일 관학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활용방안 모색과 사업홍보 등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드론 활용방안 관련 대학-우체국 간 공동세미나 실시, 우체국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천재능대 교육 홍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직렬 관심 학생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협약 체결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전과 역량 강화 위해 협력

우리대학은 4월 7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대학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대응하여 대학과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전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생직업교육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며 평생직업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평생교육 연구 활동이나 현장 실무교육에 협력하며 관련 분야 정보 공유와 양 기관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바이넥스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산학이 함께 경쟁력 있는 인재 만들기

우리대학은 5월 17일 송도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주)바이넥스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남식 총장, 박정은 부총장, 박성하 송도바이오생명과학과장 그리고 황정민 (주)바이넥스 바이오생산 본부장, 최서연 CMO사업실 마케팅 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목적은 송도바이오생명과학과 학생들은 (주)바이넥스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얻고, (주)바이넥스는 우리대학의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이다. 바이넥스는 국내 최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 생산기업(CDMO)이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기대

우리대학은 5월 19일 고려대 안산병원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창현 산학협력처장, 한병조·남정훈 컴퓨터시스템과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이주한 연구부원장, 안치범·손성진 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인공지능시대, 자기주도 커리어 빌딩

'ChatGPT와 JobCare 활용전략' 특강

우리대학은 5월 11일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생직업시대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능형 생애경력개발을 위한 특강을 교직원 대상으로 개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나영돈 원장이 'ChatGPT와 JobCare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ChatGPT의 활용은 자기 주도 커리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으며, 질문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주었다. 또한 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JobCare를 활용하여 학습 방법과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활용법도 안내했다.



오늘은 '텀블러'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Eco-Friendly' 프로젝트

우리대학은 4월 19일 본관 8층 입구 앞에서 2023년 혁신지원사업 'Eco-Friendl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텀블러를 가져오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를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다양한 실천법을 공유했다. 우리대학은 올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입학식에서 종이 인쇄물 대신 QR 코드를 이용해 행사 팸플릿을 볼 수 있게 제작하는 등 지구 환경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ESG 경영에 본격 돌입했다.



“드넓은 우주는 차‘별’이 아닌

차이만 행성을 담는다”

2023 인권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리대학은 5월 8일 총장실에서 인권센터가 개최한 '2023 인권 슬로건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드넓은 우주는 차‘별’이 아닌 차이만 행성을 담는다』는 표어로 거대한 우주에서 차이만 있

을 뿐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한 최연우(뷰티스타일리스트과) 학생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 김신원(유아교육과), 김지훈(건강관리과) 학생이, 장려상에는 김채은(간호학과), 정이나(간호학과), 송용주(유아교육과) 학생이 수상했다.



진로 고민, 함께하면 반으로

늘품학과·성산효마을학교와 간담회 실시

우리대학은 3월 14일 늘품학교, 4월 14일 성산효마을학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궁금증을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과 투어를 통해 실습시설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직업교육을 경험했다. 늘품학교는 2018년 설립되어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텀스피릿 프로젝트 및 진로특강을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성산효마을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정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위탁대안학교로 '효' 인성을 중심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스승의 날 축하 카네이션 전달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행사로 총학생회와 대의원회 학생들이 이남식 총장과 박정은 부총장, 김윤주 교학처장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남식 총장은 학생들에게 대학이 개선해줄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대학 체

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학생식당이 단일 메뉴라는 아쉬움, 인기 있는 식단이 나왔을 때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식당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같이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더욱 뜻깊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였다.



다른 너, 다른 나, 같은 우리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우리대학 사회복지과가 미추홀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브솔 시내와 협력하여 4월 20일 송림캠퍼스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다른 너, 다른 나, 같은 우리'라는 주제로 장애인 작품 전시회 및 체험활동 부스를 설치하여 재학생 장애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직접 우리대학 캠퍼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CJ올리브영(주)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현장실습과 우수 인재 취업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

우리대학은 5월 24일 CJ올리브영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및 우수 인재 취업 지원,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CJ올리브영(주)는 1999년 1호 매장인 신사점을 시작으로 2017년 온라인몰을 오픈하며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한국의 헬스와 뷰티스토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대학과 CJ올리브영(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였다.



서석돌 교수, 유튜브 채널 웨이크아트(ShakeArt) 씨네스토랑 진행

사진영상미디어과 서석돌 교수가 국내외 영화에 대해 가감 없이 토론하고 즐기는 웨이크아트에서 기획과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씨네스토랑은 '방구석 1열'의 형식으로 여러 패널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의 작품성과 배우의 연기,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씨네스토랑은 'Cinema+Restaurant'의 합성어로 '영화 맛집'이라는 네이밍으로 단편적으로 흘러보내기 아쉬운 작품을 건져 올려 음미한다. 시즌1에서는 영화 관련 인물(김경식, 봉만대 감독, 김청기 감독, 천은경, 배재철 교수 등)을 초대하여 진행했다. 현재 시즌2에서는 영화배우 패널과 함께하고 있다.

윤예리 교수, MBN '한번 더 체크타임' 고정출연



호텔의식조리와 윤예리 교수가 MBN '한번 더 체크타임'에 전문가 패널로 고정출연 중이다. '한번 더 체크타임'은 인간의 예상 수명을 알아보고 맞춤형 건강 비법을 찾는 신개념 건강 예측 프로그램이다. 전공별 의사와 식품전문가가 게스트의 일상을 살펴보고 건강과 식습관을 체크한다. 윤예리 교수는 식품학 박사로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건강 비법을 제안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2023 화랑미술제, 유희영 교수 작품 전시



2023 화랑미술제가 4월 12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코엑스 B,D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화랑미술제에 사진영상미디어과 유희영 교수의 Bottle Series22가 전시되었다. 41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아트페어 '2023 화랑미술제(Galleries Art Fair 2023)'는 역대 최대의 규모이자 역대 갤러리의 참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56개 우수 화랑의 엄선된 작품들을 선보였다. 유희영 교수의 Bottle Series22는 김영섭사진화랑의 소속으로 주명덕, 김영섭, 조선희 등 작가들의 사진과 함께 전시됐다.



박윤수 교수, 제10회 국제장애인기술올림픽대회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분 금메달 기술지도

드론영상과 박윤수 교수가 지도한 함승우 학생이 프랑스 메즈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술올림픽대회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장애인기술올림픽은 UN(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돼 4년마다 장애인의 기능 향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박윤수 교수는 국제장애인기술올림픽대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리액트 네이티브(React Native)와 앰플리파이(Amplify)를 활용한 단어암기 앱을 만드는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지도를 해왔다.

2023
학습 노하우
에세이 공모전

나만의 슬기로운 학습 노하우

2023. 5.15.(MON) ~ 11.24.(FRI)

비교과란?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혁신센터, 취창업진로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국제교류협력센터, 교학처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슬기로운
학습 노하우를
찾습니다!**

내용

주제 | 학습 태도 개선, 성적 향상, 진로 결정 등 스스로 개선되어 추천 / 공유하고 싶은 수업/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에세이
대상 | 재학생(전공심화, 성인학습자 포함)
제출 | 신청서 양식 → 담당자 이메일 제출 (jysung0507@jeiu.ac.kr)
*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학생공지 확인

문의

담당: 교육혁신센터 성주연(032-890-7081)

JEIU 인천재능대학교 | 교육혁신센터

취창업진로지원센터



학과 맞춤형 취창업진로캠프 운영

취업 성공과 창업 성공을 위한 실전역량 강화 교육

취창업진로지원센터는 5월 22~23일 양일간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혁신지원사업 취창업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취창업진로캠프는 학과 단위의 진로 설계와 취·창업 집체교육을 통한 역량 함양과 더불어 소속감 고취를 도모하고자 진행되었다. 전문 강사가 다수 참여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특강, 트렌디한 자소서 완성, 실전면접 시뮬레이션(모의면접), 나의 진로 확인을 위한 진로 탐색, 한눈에 보는 온라인 창업 트렌드, 와디즈와 함께하는 창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올해는 단체교육방식이 아닌 학과 맞춤형 1:1 개인 집중관리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따른 대응 방법과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다.



2023 인천 공기업·우수기업 설명회 실시

23개 기업 참여, 1,051명 학생 방문

취창업진로지원센터는 5월 9~10일 인하대학교에서 우리대학과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주최로 '2023 인천 공기업 및 우수기업 설명회'를 운영했다. 인천지역 공기업과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의 인재상 이해,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틀간 1,051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23개의 기업 소개, 채용 프로세스 정보, 지원서 작성Tip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업체별 상담 부스를 운영해 1:1 상담도 진행되었다. 우리대학은 2022년부터 인천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학관 협력 취업 지원으로 산학일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과 지자체, 타 대학과의 공유·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도모를 위하여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남동구와 동구 채용박람회 'VR(가상현실) 모의면접 체험관' 운영

취창업진로지원센터는 4월 20일 남동구 평생학습관 채움강당, 4월 26일 동구 주민행복센터에서 청년·신중년 구직자 대상 면접역량 강화와 두려움 해소를 위한 'VR 모의면접 체험관'을 운영했다. 남동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박람회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들을 위한 행사로 16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해 면접관과 1:1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VR 모의 체험관, 이력서 사진 촬영, 뿌리산업 특화사업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행복한 내일(JOB) 제1회 동구 채용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직·간접 참여기업 50개사의 채용관이 운영되었으며, 35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해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VR 모의면접 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한 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생상담센터



색채를 통해 나를 찾는다

학생상담센터, 원예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의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4월 12일 '원예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양한 색채의 꽃을 활용하여 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총 16명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색채를 통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고, 정서를 정화하여 학습동기를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원예치료 집단상담에 참여한 박○○ 학생은 "자신의 색을 찾아보고 함께 얘기를 나눈 후 꽃다발을 만들 때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김지현 학생상담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이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과 함께하는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본다

방송학보사에서는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캡스톤디자인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대학 학과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생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하였다. 그간 협력의 성과를 소개하는 동시에 앞으로 동반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과와 기업 간 협력의 강도와 밀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한다. 첫번째는 호텔외식조리과와 협력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이다.



CJ프레시웨이

- 1999.01 국내 대기업 최초 식자재유통 사업 진출
- 2003.11 업계 최초 HACC인증제 및 식품안전센터 운영
- 2009.08 지역상생 식자재유통모델 '프레시원' 설립
- 2010.07 국내 최대규모 저온물류센터, 이천 통합물류센터 오픈
- 2011.01 매출 1조 원 돌파
- 2015.01 업계 최초 매출 2조 원 돌파
- 2016.11 업계 최초 'ESG평가' 최우수기업 선정
- 2018.06 스마트 프리미엄 급식 '그린테리아 셀렉션' 오픈
- 2020.01 업계 최초 매출 3조 원 돌파
- 2020.06 센트럴키친 중부센터 가동
- 2020.10 업계 최초 'ESG평가' 6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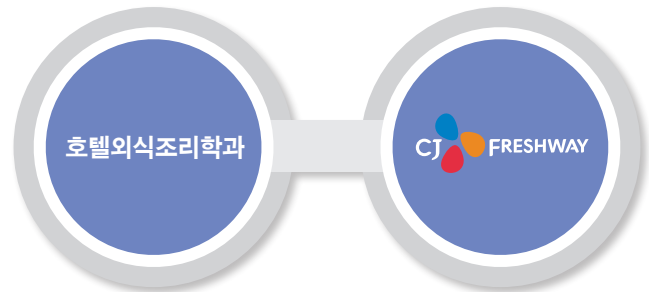
MISSION

식문화 트렌드와 고객 사업환경에 최적화된 ONLY ONE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사업 성공에 기여한다.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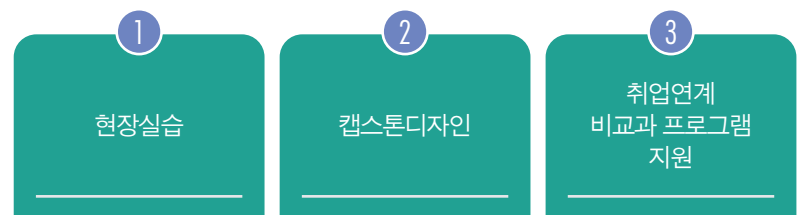
Food Business Partner Creating the Success Way

BUSINESS



호텔외식조리과는 5월 12일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학습은 LINC 3.0 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외식조리과 2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CJ프레시웨이의 인재상, 단체 급식 트렌드, 취업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고 CJ프레시웨이 조리아카데미를 방문해 다양한 메뉴 개발을 직접 체험했다. 호텔외식조리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CJ프레시웨이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호텔외식조리과 임대원, 장승산, 김찬호, 김성주, 김희수, 박소정 학생이 올해 2월 CJ프레시웨이 공채 입사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다.

협력사업



대한민국 No.1 식자재 Buying Power

- 식자재 유통 사업
- 업계 최대 24,000여 종의 다양한 상품군 보유
- 업계 최대 전국 Cold Chain 유통 거점 보유
- B2B/B2C 상품력 강화를 위한 자체 제도 인프라 보유
- 미국, 중국, 칠레, 베트남 등 해외 상품 소싱 거점 구축
- 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안 역량 보유

산업체, 오피스, 관공서 경로 맞춤 운영

- 단체급식(푸드서비스) 사업
- 단체급식 수주 M/S업계 1위
- 10,000여 개의 자체 레시피 확보를 통한 다양한 메뉴 제공
- 편의식, 라운지식, 건강식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 업계 최고 수준의 식품 안전 및 점포위생 관리
- 식단 큐레이션, 로봇 서빙 등 점포 운영 Digital Transformation

평생교육원 소식



**평생교육
수요 맞춤형 위탁·자체강좌 운영**
합창단 입문과정에서
부동산 경매 실무강좌까지

평생교육원은 4월 6일~ 5월 25일까지 「도란도란」 합창단 입문' 위탁강좌와 「돈 보는 눈을 키우는」 부동산 경매 이론 실무' 자체 강좌를 운영했다. 「도란도란」 합창단 입문 강좌는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발달장애인)-교수자의 자연스러운 문해교육과 학습 동기 유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돈 보는 눈을 키우는」 부동산 경매 이론 실무 강좌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부동산 경매 유형과 절차, 권립 분석&일반론,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위탁강좌와 기구 필라테스, 자격증 강좌, 방송댄스, 교사직무 연수 등 다양한 재학생 및 시민 강좌를 활발히 운영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도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수강 문의 평생교육원, 032)890-7036~8

영재교육원 소식

**2023학년도 동구창의논리영재교실
1학년 신입생 모집**

영재교육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청과 관·학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동구창의논리영재교실 1학년 신입생 선발을 시작했다. 서류접수는 5월 15일부터 25일 소인까지 등기로 접수하였다. 6월 18일 예비교육을 거쳐 6월 29일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4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동구창의논리영재교실은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논리적사고,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프로그램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4시간씩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동구청과 함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초등 동구창의논리영재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23년 상반기 초등 창의논리영재캠프는 7월 22~23일 양일간 총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재교육원은 동구창의논리영재교실과 동구창의논리영재캠프를 통하여 21세기의 AI 신문명 사회를 주도할 '자율'과 '창의'가 핵심이 되는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한다.



부속유치원 소식

제101회 어린이날 맞이
'빛나는 우리들의 축제' 행사 실시

인천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5월 3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빛나는 우리들의 축제' 행사를 진행했다. '빛나는 우리들의 축제'는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교사들이 준비한 「하늘나라 음악교실, 몽게구름」 합창과 악기연주 공연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교사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는 유아들은 흥에 겨워 박수를 치고, 함께 몸을 흔들며 즐거워하였다. 이후 각 반별로 '날아라 핸드글라이더 놀이, 방울방울 비눗방울 놀이, 골라먹는 과자 뷔페, 폭신폭신킴사탕과 팡팡톡톡 팝콘 먹기' 활동을 하고,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냈다.



인천재능고등학교 소식

월 1회 다양한 체험을 위한
'모꼬지 날' 실시

부속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창의·상상체험, 예술체험, 공연관람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체험활동인 '모꼬지 날'을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3월 모꼬지 날에는 '에어바운스 놀이'를, 4월에는 봄을 맞이하여 '플라워 파티'를 실시하였다. 이번 5월 24일 모꼬지 날에는 대학 대강당에서 '인어공주 이야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음악회에서는 인어공주 영상과 함께 피아노, 플루트, 첼로 클래식 연주로 OST를 감상하는 시간과 성악가가 들려주는 동요 등 어린이들의 시청각을 즐겁게 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인천재능고등학교,
2023년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3개 직종 상위 입상
참가 전 종목, 금·은 석권

인천재능고등학교가 '2023년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화려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자랑으로 우뚝 섰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재능고등학교 학생들은 게임개발, 모바일로봇, 산업용 드론제어 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다. 올해 처음 도전한 게임개발 직종에서는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마트통신과의 신혜철(1학년),곽수현(2학년) 학생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로봇직종에서는 스마트전자과의 홍유락(1학년), 김인혁(2학년) 학생이 출중한 기술력을 발휘

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산업용 드론제어 직종에서는 높은 난도의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한 AI로봇과 윤영호(2학년), 이강일(2학년)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학현(2학년), 이진건(1학년)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승민(2학년), 이재명(2학년) 학생은 장려상을 획득했다. 인천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재능고등학교는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기술력 향상에 힘쓰며 인천지역의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능교육 소식

JEI 재능교육

그림책 <노란 줄무늬 고양이>, 2023년 한국-아랍 그림책 번역대회 도서 선정

재능교육(대표 박종우)이 출간한 그림책 <노란 줄무늬 고양이>(최하진 글·그림)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가 공동 주최하는 2023 한국-아랍 그림책 번역 대회의 도서로 선정됐다. 한국-아랍 그림책 번역 대회는 한국의 우수한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출간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참가 대상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과 한국의 아랍어 전공 학생들이다. 참가자들은 선정된 그림책을 번역하며, 이를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시상한다. 2023년 대회는 국내 42개 출판사의 도서 중에서 재능교육의 <노란

줄무늬 고양이>를 포함 총 8종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으로는 선명한 서사, 밝고 긍정적인 세계관과 색채, 종교적·문화적인 금기 내용 제외, 어린이들의 생활과 심리를 잘 표현되었는지가 글의 분량과 난이도 등과 함께 고려되었다.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그늘에서 유쾌하게 벗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좀더 당당한 내가 되길!’이라는 위로와 당부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전한다.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2021년 발행된 이후 국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중국 판권 수출에 이어 올해 타이페이 국제 도서전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리 문화유산들 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거리가!?

재능교육, 재능생각하는한국사 '문화유산편' 선보여



재능교육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재능생각하는 한국사'의 '문화유산편'을 새롭게 출시했다. 앞서 재능교육은 '정답이 없는 사고력 한국사 학습'을 표방하며 '역사적 인물들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생각해보는 '인물편'을 선보인 바 있다.

▶ 문화유산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도록 구성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 아이들이 역사를 통합적,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대마다 문화유산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다양한 생각거리 제시

그 유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주어진 정보 통한 추론 증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최적화된 '역사적 사고력 학습'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역사적 사실을 탐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는 것'을 사회과 학습의 성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재능생각하는한국사는 혼자 읽고 쓰기가 가능한 아이라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능교육 홈페이지(www.jei.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능문화 소식

JEI 재능문화

제33회 '재능시낭송대회' 개최

소통하고 공감하는 '창의적 감성인재' 양성



재능문화가 전국을 시의 향기로 물들이고, 전 세대에 시낭송의 즐거움을 알리는 '제33회 재능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 재능시낭송대회는 재단법인 재능문화와 한국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종합교육문화기업 재능교육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 전국 규모의 시낭송대회이다. 재능문화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좋은 시를 읽고 낭송하다 보면 감성이 순화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91년 한국시인협회와 공동 주최로 '전국 어린이와 어머니 시낭송대회'를 개최한 이후 33년째 대회를 이어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능시낭송협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시낭송 콩쿠르인 재능시낭송대회는 지금까지 초등부 17,648명, 중고등부 4,270명, 성인부 12,789명 총 34,707명이 참가하여 549명의 시낭송가를 배출했다. 참가 접수는 5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한 2차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1, 2차 예선대회를 모두 통과한 참가자는 11월과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각 부문별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성인부 본선대회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며, 동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시인협회가 인증하는 '시낭송가증서'를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능시낭송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능교육연수원 소식

스마트시대,
창의적 리더 양성의 요람 재능교육연수원

교육과 휴양이 동시에, 평생교육 개념의 연수원

재능교육연수원은 재능교육 스스로학습철학의 구현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통해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장을 제공한다.



연건축 면적
24,893m²(7,530평)

시설
창의관 · 생활관 · 휴양관 · 식당 · 체육시설 · 편의시설

강의장 수용인원
1,300명

숙소 수용인원
470명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교육환경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강의시설로 목적에 맞는 교육을 진행, 멀티미디어 교육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



내일의 교육을 위한 아늑한 휴식

총 4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 편안한 휴식을 통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안락한 휴식 공간과 양질의 식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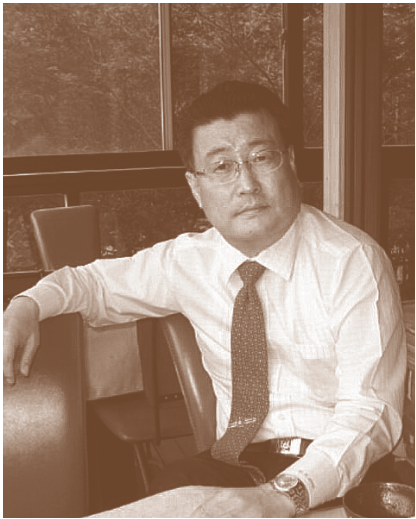


일상의 루틴을 자연과 함께

심신단련을 위한 운동장과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과 사우나실,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교육생 누구나 편리한 레저시설 이용 가능

찾아오시는 길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병천오거리 신라정밀 ⇨ JEI재능교육연수원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우각골길40(764-1)
대표전화 041-522-0303 | **팩스** 041-552-6086
대관문의 041-552-1427 | www.jei-jsl.com



졸업 40여 년 즈음 인생을 돌아보며...

방송학보사에서는 우리대학 총동문회와 함께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유대 강화와 졸업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동문소식란을 마련해 매회 소개할 예정이다. 총동문회의 모임과 활동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학과 동문회의 소식도 전함으로써 동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재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굽게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동문 한 분 한 분의 활동과 소식도 적극 게재할 예정이니, 큰 관심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시대를 살면서 재학과 졸업의 구분이 어디 있겠는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구하는데 학교 안팎을 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자리를 출발로 동문 모두가 우리대학을 학습의 평생 공동체로도 여겼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80학번 송기영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재학생 후배와 동문님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주)콤텍 피엔씨 대표이사이자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일을 겸직 중인 새내기 농부입니다. 유선통신과를 졸업하고 군입대, 전역 후 (주)콤텍시스템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 네트워크망 설계 및 구축 작업과 유지보수를 업무로 근무하여 남들이 흔히 회사의 별이라 말하는 상장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후 직장생활 20년 만에 회사를 창업하여 올해로 창업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급변하는 IT분야에서 남보다 빠르게 그리고 완벽을 요구하는 업무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등 창업 후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나가며 성취감도 맛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산에 오르고 고비를 넘기며 산행의 기쁨을 알게 되어 틈틈이 등산과 트레킹을 하다 보니 한국의 100대 명산, 전국 국립공원 투어, 서울 둘레길 종주, 제주 올레길, 해외 유명 트레킹 코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활동이자 삶의 진지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총동문회에서는 산악회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4도3촌(4郡3村)의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이 분야에 발을 들인지도 40여 년이 지나 이렇게 동문 후배님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지일관으로 달려온 시간에서 한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산삼학'일 것입니다. 산삼을 찾으려면 첫째, 산삼을 알아야 합니다. 도라지인지 더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약초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식을 말하죠. 둘째, 산삼을 찾는 장소입니다. 산에 가서 찾아야지 들판에서 산삼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이 다 다니는 편안한 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새로운 숲속을 다녀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공부(끊임 없는 지식의 습득)를 해야 하고 찾을 장소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하며 쉽지 않은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와 세미나, 경영자 과정을 통해 늘 새로운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 더 힘을 들이고(성실과 근면)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만의 산삼 즉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학했던 시절 3개 학과 200여명 정원의 대한전문대학은 이제 23개 학과 약 2800여 명의 인천재능대학교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재학생, 동문 여러분!
성공하였다고 말하기보다 가족, 친구에게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농부로서 앞으로의 인생도 아름답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후배님들의 소식에 늘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후배들의 앞날에 지면으로나마 밝고 건강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짧은 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인제에서 송기영

시로 소설쓰기

캠퍼스 러브 스토리

구글 ‘바드’의 도움을 받아 짧은 소설을 썼다.
기본 틀에 구체적인 상황 묘사는 상상력을 더했다.
첫눈에 반해 결국 연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평이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부분은 삭제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되었다.
에밀리와 잭이라니! 주인공 이름이 정해졌기에 그대로 따랐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캠퍼스 러브 스토리를 요청해 봐야겠다.



키워드 대학에서 펼쳐지는 로맨스 ⊕ 극적 만남 ⊕ 시작

에밀리는 개강 첫날 긴장했다. 그리고 약간 흥분상태였다. 새벽에 일어나 메이크업과 드라이로 3시간이나 공들였지만 강의실에서 거울을 보니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었다. 짝짝이 눈썹 때문에 사납고, 비호감으로 보였다. 누가 오기 전에 눈썹을 수정하고 싶었다. 다행히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 사람은 없었다. 가방에서 파우치를 들어올리는 순간 화장품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떨어진 화장품을 주우려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 갔을 때, 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남자 둘이 전날 있었던 농구경기에 대해 떠들며 들어왔다.
‘첫날부터 망했어! 망했다구!’
예전과는 다른 삶, 다른 자신을 꿈꿨던 에밀리는 개강 첫날부터 희망으로 가득했던 대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에밀리 아무리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이거 니꺼야?’
남자의 손에 에밀리의 립스틱이 들려있다.
‘어, 고마워!’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립스틱을 받아들였다.
‘헉! 미치겠네!’
자신도 모르게 에밀리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아니, 고맙다고!”

“근데, 너 눈썹이…”

에밀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에밀리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강의실을 나가려 일어섰려고 할 때… 창밖 건너편 건물 옥상에 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저 사람 뭐지?”

“어디?”

잭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건너편 건물 옥상을 봤다. 순간 휘청하고 떨어질 듯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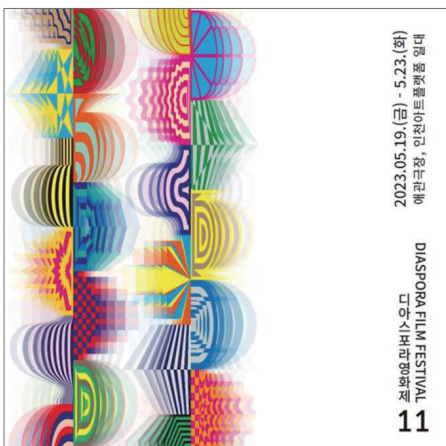
잭과 에밀리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잭이 먼저 반응했다. 맞은편 건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에밀리는 911에 전화를 걸었다.

에밀리는 뭔가가 투박하게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창밖을 보았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와 그 앞에 잭이 서 있었다.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잭은 에밀리를 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잭의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잭은 에밀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쩌면 다음 편이 있을 지도…

제 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다녀오다



차별과 편견을 겪는 국내외 이주민과 난민 등의 삶을 조명하는 ‘제11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5월 19일부터 닷새간 인천아트플랫폼 등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어웨이’를 시작으로 27개국, 88편의 작품을 상영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과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의 문화를 지켜온 유대인의 삶을 지칭하는 말로, 또는 분산과 이산 등 동일한 것이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난민, 실향,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다. 그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연대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과 만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접하며 여전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분쟁 속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인류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수 없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

게 한다. 영화제에서 ‘퀴어 마이 프렌즈’를 보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 여성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현이 절친한 친구이자 게이인 강원과 쌓아나가는 우정의 여정을 담은 영화이다.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친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응원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는 성 역할, 보수사회의 시선, 종교와 군대까지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만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모든 갈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비교하고 우위를 가르고 서로가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외친다. 서로를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혐오한다. 하지만 문화는 뒤돌아 귀를 막고 있는 상대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애써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찾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글 정모세

방송학보사 40주년 창간기념 이벤트 실시 방송학보사는 공학관 1층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어…!



방송학보사는 5월 30일 학생관 1층에서 창간 40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기자단이 방송학보사와 재능TODAY를 홍보하고 친밀감을 이끌기 위해 게임과 소정의 선물, 간식을 준비했다.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뽑기 게임 상품으로 4등 스낵 한 봉지, 3등 학교 카페 쿠폰, 2등 손선풍기, 1등 치킨쿠폰(기프트콘)을 준비하였다. 방송학보사 창립기념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글 배지우

P.S 방송학보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환영합니다.
대학에 대한 궁금한 점, 개선 점 등 기사를 의뢰해주시면 취재하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이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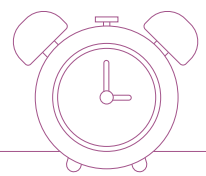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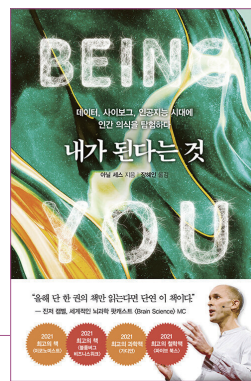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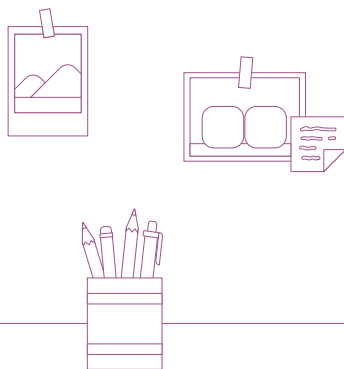
리바운드(rebound): 실패의 순간을 다시 기회로!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된다. 하지만 전국대회에서의 첫 경기 상대는 고교농구 최강자 용산고. 팀워크가 무너진 중앙고는 몰수패라는 치욕의 결과를 낳고 학교는 농구부 해체까지 논의하지만, 양현은 MVP까지 올랐던 고교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최약체 팀이었지만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2012년 전국 고교농구 대회에서 써 내려간 8일간의 기록을 영화화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할 때, 우리는 ‘리바운드’라는 또 다른 기회를 잡는다. 체력 소모가 큰 농구에서 교체 선수 없이 여섯 명이 뛰었다니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결승까지 가는 부산중앙고 농구부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승전에서 결국 두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세 명이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고와 점수 차는 13점. 결과는 준우승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패자라고 하지 않는다. 한계를 넘어선 기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영화 제목의 뜻처럼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성장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패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거나,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실패의 순간을 다시 기회로!

글 윤혜송

생각의 스위치



픽사 스토리텔링

저자 매튜 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9가지 스토리 법칙

애플, 구글, 디즈니, 레고, 넷플릭스가 등 기업들은 왜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가? 바로 스토리가 가진 힘 때문이다. 똑같은 메시지나 데이터라도 낯설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스토리를 결합해 전달하는 것은 효과가 천지 차이다. 인지심리학자 제롬 브루너에 따르면, 사람은 스토리를 통해 정보를 접할 때 무려 22배나 잘 기억한다고 한다. 소설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스토리로 가르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력적인 스토리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공감을 사고, 가슴을 뛰게 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픽사 스토리텔링』은 저자가 픽사에서 스토리텔러로,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 법칙을 후크, 변화, 교감, 진심, 구조, 영웅, 조연, 혁신, 영감 등 9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 책은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기획,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등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

내가 된다는 것

저자 아닐 세스

데이터, 사이보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의식을 탐험하다

‘의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오늘날 신경과학이 핵심적으로 파고드는 문제 중 하나다. 이 주제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추상적이며 미스터리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심지어 의식은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과학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여겨지곤 한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아닐 세스는 불가해하고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의식이라는 주제를 참신한 관점으로 접근해 의식과학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외부 세상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 경험은 살아 있는 우리의 몸 ‘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몸 ‘때문에’ 발생하는 뇌 기반 예측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의식의 여부는 인지적 능력인 지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서의 성질’(감각)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자아의 본질 또는 의식은 이성적인 마음도, 비물질적 영혼도 아닌, 살아 있다는 감각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있다. ‘내가 된다’는 경험 또는 의식은 살아 있는 신체에 기반하며 매우 물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생명이 곧 의식의 뿌리인 셈이다.



Show
your
talent

재능이 만든
재능을 키우는 학교
재능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JEI 인천재능대학교



ipsi.jeiu.ac.kr

[재능그룹과 인천재능대학교는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JEI 재능교육
 재능 **스마트** 러닝센터™
 JEI 재능방송
 JEI **재능**
 JEI English TV
 JEI 재능e아카데미
 JEI 재능인쇄
JEI 재능유통
 JEI PLATZ
 JEI 재능셀프러닝
 JEI 재능교육연수원
 JEI 재능학원
 JEI 재능문화
 JEI JCC